

“일상서 계 지키며 건강과 행복 찾아”

통도사 4월 23일~25일 보살계 봉행

개산조 자장율사가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금란가사를 봉안하고 금강계단을 쌓아 계를 설한 계율의 근본도량 통도사(주지 원산)가 보살계를 봉행했다. 4월 23일~25일 통도사 설법전과 금강계단에서 봉행한 이번 보살계는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1500여 명의 불자들이 성황을 이뤘다.

4월 23일 오전 9시 불공으로 시작한 보살계는 산립법석, 연비, 사리탑 참배, 탑돌이 등으로 마무리됐다. 전계대화상 영축총림 울주 혜남 스님을 비롯해 3사 7중사 스님이 3일간 보살계를 설했으며 참가자들은 계를 지키는 삶을 받았다.

25일 회향에 앞서 주지 원산 스님은 “자장 율사께서 신라의 대국통으로 전국의 모든 스님이 통도사에서 계를 받았다. 참가하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한명이 되신 것은 영광이며 이 계를 지키므로 금생에서 건강하고 행복하며 다음 생에도 수계 공덕으로 어려움이 없어지고 행복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통도사 보살계에 참가한 불자들은 통도사에서 계를 받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 안양에서 온 김복희(70)씨는 “멀리서 굳이 이렇게 온 이유는 금강계단에서 계를 받는 기쁨이 있어서다. 2박 3일 동안 기도하며 마음이 편안했고 스님들의 열정에 감복했다. 다음에도 꼭 참석하고 싶다”며 소감을 말했다.

또한 통도사에 참가한 불자들은 가족들

에게도 수행활동을 독려하고 함께 계를 받아 지킴으로써 가정의 화목함을 유지한다고 전했다.

7년 동안 빠짐없이 보살계에 참석하고 있는 이상복(76) 불자는 “손자가 3살 때부터 참석했는데 지금은 10살이다.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으로 잘 자라고 있다. 계를 받고 지키는 불자로 사는 덕분에 더욱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 같다”며 참여 소감을 말했다.

전국 각지서 1500여 불자 참여
연비, 사리탑 참배, 탑돌이 등 가족 단위 수계자 참여 '늘길'

특히 통도사 보살계에 참석한 불자들은 계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지속적으로 참가해 주목을 받고 있다.

회향식에서 통도사는 보살계에 30회, 25회 20회, 15회, 10회 등 연이어 참석한 불자 82명의 신심을 격려하고 기념가사, 성찬패 및 메달을 수여했다.

한편, 통도사는 수계식에 앞서 영축총림 승가대학원 및 승가대학 54명의 스님들에게 5000여만원의 ‘영축 장학금’을 지급했다.

하성미 기자



통도사가 4월 23일~25일 설법전과 금강계단에서 보살계를 봉행했다.

“계 지키며 자녀들에게 모범 보여줘”

30년 동안 보살계 참석한 김말순 불자

30년 동안 통도사 보살계에 참석한 김말순(67·부산 금정구·사진) 불자는 “계를 지키는 것은 행복의 근원이 된다”고 전했다.



“시력과 청정 모두 불교 집안이었죠. 처음에는 계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 참석했는데 벌써 30년이 되었네요. 그동안 계를 지키고자 노력했고 그 인연으로 가정도 화평하고 자식들도 잘 성장한 거 같아요. 이번 행사에서는 며느리, 사위, 100일 된 쌍둥이 손녀들까지 계를 받았습니.”

하성미 기자

〈수보살계법서(受菩薩戒法序)〉의 가르침은 김말순 불자를 30년 동안 깨어 있는 수행자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다. “매년 계를 받았으니 오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죠. 또한 불자로서 작은 선행이라도 하지는 다짐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마음 가짐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 거 같아요.”

덕분에 아들은 치과 의사로 딸은 중학교 교사로 성장했다. 김말순 불자는 “가정의 평화와 건강이 모두가 부처님의 계율이 율타리가 되어 이루어진 결과이며 부처님의 가피”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를 받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불자로 살고자 한다”고 전했다.

성철 스님 기념관, 산청 겹외사에 문 열어

백련문화재단, 4월 24일 개관식... 일반에 개방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불자들이 수행·정진할 수 있는 공간인 ‘성철 스님 기념관’이 공식 개관했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성철 스님 기념관(이하 기념관) 4월 24일 경남 산청 겹외사에서 개관식을 가졌다. 기념관은 2012년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설계도를 완성했으며, 열반 20주기를 2013년 5월에 불사에 착공했다.

기념관은 성철 스님 생가 터인 산청 겹외사에 마련됐다. 1층은 성철 스님 설법상을 모셔 참배 공간으로 구성했고, 2층 ‘퇴옹전(退翁殿)’은 수행·정진 공간으로 사용된다. 기념관 측은 퇴옹전에서 참선과 절, 아비라를 비롯한 다양한 기도와 정진 및 불법 강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중에게 완전 개방할 방침을 밝혔다.

이밖에도 연화좌대 위 여덟 개의 기둥이 건물에 받치고 있는 입구는 불교의 근간인 팔정도(八正道)를 의미하며, 인도 구법승의 출발지였던 돈황 명사산의 월야천을 형상화 하였다. 양쪽 벽면에는 성철 스님의 출가송과 오도송이 원형 직경 3m의 크기로 조각 설치했으며, 더불어 생전 성철 스님을 볼 수 있는 여러 사진이 함께 배치됐다.

기념관은 성철 스님 사상 전파를 위한 교육관 개념으로 불사를 시작했다. 하지



백련불교문화재단 성철 스님 기념관 개관

만 이후 문도스님들이 불자들의 수행생활이 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뜻을 모아 교육과 추모, 참배가 가능한 시설로 재설계했다.

이번 기념관 불사를 진행한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부처님이 깨치신 길을 걸어가는 성철 스님의 공덕을 우리러리고, 우리 모두가 깨달음의 정상에 우뚝 서길 서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055)973-1615 **백아름 수습기자**

(사)대한불교 선화조계종 창종 및 종정 추대

안동 송천동 사단법인 대한불교선화조계종(종정 법정)이 4월 26일 개운사에서 종정추대 및 창종법회를 봉행했다.

부산 총사위예술원 장명경 원장의 육법공양 후 원로위원장 삼공 스님을 대표로 추대식이 시작됐다. 이 자리에는 종회의장 혜수 스님, 총무원장 법산 스님, 호법위원장 대일 스님, 총무부장 해원 스님, 호법부장 용산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동참해 법정 스님을 종정으로 추대했다.

종정 법정 대중사는 법어를 통해 “오직 한가지 일에만 심신을 모아 언저 어디서



사)대한불교 선화조계종 창종법회

든 여려한 불자가 되어야 한다”고 법문했다. 이어 종정 법정 스님과 총무원장 법산 스님은 종단 소임스님들과 사부대중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총사위예술원 단원들의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손은철 대구지사장

정종사 네팔 지진 참사 위해 모연 활동 나서

‘108 자비손’에 500만원 전달

경남 양산 자비나눔도량 정종사 주지 여해 스님(사진)이 네팔 지진 참사를 위한 모금 활동에 나섰다. 여해 스님은 “각자의 선한 마음을 일깨우자”며 SNS에 권선문을 올리고 “우리가 각자 따로 사는 듯 해도 그 실상을 보면 연기적으로 다 이어져 공존하고 있다. 고통 속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이들은 남이지만 또한 남이 아니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여해 스님은 “모연금이 모아지는대로 모두 전달할 예정이다. 유명한 기부단체를 통해 전달하기 보다 피해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불자들의 동참을 권유했다.

한편, 정종사는 자비나눔도량으로 불자들에게 3000가지 선업 쌓기를 독려하며 육바라밀 중 보시행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은행 178-082031-01-015 대한불교 조계종 정종사 (055)366-6867

하성미 기자

청소년과 기성세대와의 소통의 장 마련

제1회 청소년 울산 팝 댄스 콘테스트 ‘꽃보다 10대’

봉축을 맞아 청소년을 위한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정도사관자재회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원장 능행)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25일 오후 2시 대학원 야외무대에서 ‘제1회 청소년 울산 팝 댄스 콘테스트, 꽃보다 10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울산 지역 초·중·고 청소년은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경연대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댄스팀은 팀당 6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5팀까지 접수 받는다. 장르는 힙합·K팝·현대무용·스포츠댄스·한국무용·스트릿댄스·에어로빅 등으로 공연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된다.

팝송 부문은 5팀까지 접수받으며 팀 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공연 시간은 5분 이내이며 장르는 K-POP, 팝송, 아카펠라 등이다. 접수마감은 5월 8일이며 추가 접수는 5

월 13일 까지 이메일(mahabodhi@daum.net) 접수 받는다.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은 50만원이며 모든 참가팀에게는 장학금 30만원이 수여된다. 제출 서류는 UCC 동영상과 학교장 추천서이며 예선 발표는 5월 15일 마하보디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개별 통지한다.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은 “가정의 달 5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한민국 비전인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소통 열림 치유라는 주제로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과 기성세대와의 소통, 공감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이날 부대행사로는 청소년·학부모 상담, 의료 봉사, 만발공양, 컵 연등 만들기 등 단주 및 매듭 팔찌 만들기 등도 마련된다. (052)255-8521 **하성미 기자**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양로원에 자비나눔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법운)은 4월 28일 울릉도 송담실버타운 양로원을 방문해 나눔을 전했다. 대한불교응공조계종은 양로원에 떡국떡과 부식 등 위문품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이 자리에는 규정부장 태오 스님, 감찰부장 명원 스님, 사서실장 지암 스님 등 소임스님들과 신도 15명이 참석했다.

송담실버타운은 칠곡 가산 용운사(주지종명)가 운영하고 있으며 법운 종정스님



은 격려로 소임스님과 신도들과 함께 울릉도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손은철 대구지사장**

보련 기획

✓ 사찰 직거래 특가 판매 ✓ 다량 주문시 할인

| 연등 자동 승강 장치 |



| 인등시공 |



| 초파일 용품 |

만 월 등



공 단 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중

황 금 등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생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BORYEON

H·P 010-9446-1862
TEL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